

PSG 이강인, 손흥민 떠난 토트넘과 UEFA 슈퍼컵

14일 오전 4시 이탈리아 우디네서 격돌... '이적설' 이강인, 팀 복귀해 훈련 집중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이강인이 손흥민과 양민혁이 떠난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상대로 입단 이후 8번째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PSG는 오는 14일 오전 4시(한국 시간) 이탈리아 우디네의 스타디오 프리울리에서 토트넘과의 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을 치른다.

슈퍼컵은 UEFA 챔피언스리그(UCL) 챔피언과 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팀이 맞붙는 경기로 중립 지역에서 단판 승부로 진행된다.

PSG는 지난 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 FA컵),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 UCL을 석권하며 '쿼드러플(4관왕)'을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달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첼시(잉글랜드)에 탈미를 잡히고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PSG는 슈퍼컵을 들어 올려 유럽 챔피언의 자존심을 되찾으려 한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도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맞대결을 준비한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중반부터 주전 경전에서 밀려 주요 경기마다 벤치에 머물고 있다.

클럽월드컵에서도 4경기 60분 출전에 그치며 동료들의 패배를 지켜보아야 했다.

여름 내내 이적설이 빗발쳤지만, 이강인은 팀에 복귀해 슈퍼컵을 준비 중이다.

PSG 구단 홈페이지 속 이강인은 밝은 미소로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강인은 이번 슈퍼컵에서 정상에 오를 경우, PSG 입단 이후 8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

현재까지 이강인은 ▲리그 우승 2회 ▲프랑스 FA컵 우승 2회 ▲프랑스 슈퍼컵 우승 2회 ▲UCL 우승 1회를 달성한 상태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UEL 우승으로 2008년부터 17년간 이어졌던 무관을 끊었다.

하지만 리그에서 강등권 직전인 17위까지 추락한 걸 이유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작별을 선택했다.

토트넘은 새로 선임한 토마스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사상 첫 슈퍼컵 우승을 노린다.

다만 프리시즌 행보를 봤을 때 기대감 보단 불안함이 큰 게 사실이다.

특히 직전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경기에서 0-4 완패를 당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무엇보다 주장 손흥민이 떠난 공격진을 두고 우려가 크다.

선발로 히샤르리송, 브레넨 존슨, 모하메드 쿠두스, 교체로 마티스 텔, 일손 오도베르 등이 출격했으나 모두 침묵에 그쳤다.

진선 경기였다고는 하나 뮌헨이 슈팅 26개를 기록하는 동안 토트넘은 단 6개밖에 그칠 정도로 심각했다. 토트넘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뒤집고 이번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이번 경기는 사상 첫 슈퍼컵 코리아nder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지만 끝내 무산됐

남자농구 여준석·이정현 무릎 부상

아시아컵 소화 불투명... 지난 8일 카타르전 이후 다쳐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주축 선수인 여준석(시애틀대)과 이정현(소노) 없이 2025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일정을 이어가게 됐다.

12일 농구계에 따르면 무릎 부상을 당한 여준석과 이정현은 남은 아시아컵 일정 소화가 어려운 상태다.

이정현의 소속팀인 프로농구 고양소노 측은 이날 경기 출전이 어려운 이정현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준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진행 중인 2025 FIBA 아시아컵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총 16개국이 참가한다.

조별리그는 4개 팀씩 4개 조로 나눠 진행된다. 각 조 1위 4팀은 8강에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은 2위와 3위의 8강 진출전을 통해 결정된다.

2승1패의 A조 2위를 기록해 이날 오후 8시 B조 3위 판과 8강 진출전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온전한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준석은 지난 8일 카타르와의 조별리그 2차전 2쿼터 막바지 이승현(현대모비스)과 교체되면서 벤치로 들어갔다.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당했고, 지난 11일 레바논과의 3차전을 벤치에서

지켜봤다.

이정현도 카타르전이 끝난 뒤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이정현 역시 레바논전을 결장했는데, 오른쪽 무릎 연골이 손상된 거로 확인됐다.

안준호는 여준석, 이정현이라는 핵심 자원 없이도 지난 대회 준우승팀인 레바논을 꺾고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남다른 3점슛 감각을 자랑한 이현중(나가사키), 유기상(LG) 등을 앞세워 양국 농구로 웃었다.

여기에 하윤기(KT), 김종규(정관장) 등이 힘을 보탤다.

안 감독은 "여준석과 이정현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명의 선수가 두 선수의 몫까지 충분히 해주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남자 농구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팀 컬러를 가지고 남은 경기도 임할 계획"이라며 원팀 코리아로 대회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여기까지만 오기 위해 탈출한 게 아니기에 앞으로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많이 준비하겠다"며 "전설이 돼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이 이날 꿈을 꺾는다면 '아시아 강호'이자 C조 1위를 기록한 중국을 만나게 된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머스레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의한/건설) HDC 엔디산업개발

'손흥민 vs 네이마르' 서울서 격돌... 한국, 브라질과 10월 평가전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LAFc)과 네이마르(산투스)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맞대결을 벌인다는 브라질 매체 보도가 나왔다.

브라질 매체 글로보는 11일(현지 시간) "2026 북중미월드컵을 준비하는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A매치 기간인 10월 10일 서울에서 한국과 맞붙고, 14일 도쿄에서 일본과 격돌하는 아시아 원정 2연전을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 일본축구협회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식 발표를 앞두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의 방한이 성사되면, 2022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

당시엔 브라질이 한국에 5-1 대승을 거둔 바 있다.

한국은 이후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에서 다시 브라질과 만났는데, 이때도 1-4로 크게 졌다.

지난 5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브라질은 6월 북중미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최소 6위 자리를 확보해 2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역대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인 브라질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21위다.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1승 6패로 크게 열세다. 1993년 서울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김도훈의 결승골로 1-0 승리한 게 유일하다.

한국과 브라질의 맞대결은 1992년생 동갑내기 스타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재대결로도 관심을 끈다.

(프랑스)에서 전성기를 보낸 네이마르는 친정팀 산투스에서 뛰고 있다.

올여름 토트넘(잉글랜드)과 10년 동행을 마친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LAFc 유니폼을 입고 제2의 축구 인생을 시작했다.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미국 원정을 떠나 9월 7일 뉴저지에서 미국, 10일 내슈빌에서 멕시코와 차례로 평가전을 갖는다.

이어 10월 10일 브라질,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뉴시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경북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대한유도회가 주최한 대회로, 전국 170여 개팀 1,500여 명이 참가했다.

순천시청 유도팀은 단체전에서 포함시청을 3:2로 이기며 금메달 획득, 개인전 70kg이하급에서는 김지정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선수들의 기량을 바탕으로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꾸준히 훈련하여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있을 국내외 대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청 유도팀은 9월 7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리는 2025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순천시청 유도팀,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금·동메달 획득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김지정 선수 동메달 획득

순천시청(시장 노관규) 유도팀이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과 동메달, 총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